

빌 마운스 박사, 산상 설교, 강의 1, 서론 및 행복

© 2024 빌 마운스 및 테드 힐드브란트

이것은 산상 설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빌 마운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 서론과 행복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무엇이 좋은가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 중 일부를 알아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게 처음이라, 이번 주에 여러분을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랭크가 반대하지 않는 한, 제 이름은 빌이에요. 제 엄마는 저를 빌이라고 부르셨어요.

저는 빌을 좀 좋아해요. 예수님이 존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뭔가 말씀하셨던 것 같고,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은 빌이지만, 여러분을 뵈게 되어서 기쁩니다.

제가 설교했던 가장 좋아하는 설교 시리즈 중 하나는 산상 설교였습니다. 다 읽는 데 2년 반이 걸렸고, 제가 쓴 책 중 거의 모든 책을 조사하는 것만큼 열심히 조사했던 것 같고, 재밌었습니다. 글썄요, 재밌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 말은, 산상수훈은 그냥 성가신 거예요. 믿으시겠어요? 그냥 성가신 거고, 그래서 성가신 2년 반 설교였지만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서서 그 연구와 작업을 강의 형식으로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재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는 4일 동안 여기 있고, 기본적으로 분석할 방식은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 처음 14절 정도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모든 것의 핵심이며, 따라서 서론적 이슈의 대부분, 설교 전체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행복에 확립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행복에 소금과 빛으로 머물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번 주 내내 그렇게 느리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은 5장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날은 6장을 대부분 살펴보고 마지막 날은 아마 6장과 7장의 끝을 살펴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 페이스를 유지할 겁니다. 저는 독백을 선호하지 않으니,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방 가운데 있는 마이크가 여러분의 질문을 잡아낼 테지만, 아마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질문과 대화는 자유롭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 교과서나 설교 시리즈에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에 오는 이유는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죠, 맞죠? 그러니까, 데이터만 원하신다면, 데이터를 얻는 더 저렴한 방법도 있으니까, 자유롭게 상호작용하세요, 알겠어요?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좋아요, 서론적인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산상 설교. 산상 설교는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은 가장 잘 알려진 책일 것입니다. 설교의 언어가 영어로 스며들었잖아요. 저는 중국에 있었는데,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제 내부 시계는 지금 산산이 부서졌고, 산상 설교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성격 문제에 대해 가르치고, 제 생각에 이런 문구 중 일부는 중국어로도 퍼졌습니다. 이걸 아주 아주 잘 알려진 문구입니다. 우리는 땅의 소금이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다른 뺨을 돌리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황금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 말은, 이건 어차피 우리 언어에서 널리 쓰이는 언어일 뿐이에요.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만,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모를 거예요. 전혀 모르죠.

그래서, 그것은 매우, 매우 유명한 가르침의 그룹이고, 저는 스토트가 그의 책을 시작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저는 기독교 반문화가, 스토트의

책은 산상 설교에 대한 절대적으로 훌륭한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례합니다.

그는 산상수훈이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이라고 말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가장 이해되지 않고 확실히 가장 따르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산상수훈에 대한 훌륭한 한 문장 요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문구를 보고, 그게 무슨 뜻인가? 나는 뺨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세 번째 후에 그 사람을 때릴 수 있어. 오른손 때문에 앓아서 잘라내면 실제로 무슨 뜻인가? 댄 윌리스는 문법에서 정육을 멈출 수 없었던 신학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는 문자 그대로 드라이버를 들고 눈을 뺨았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스스로 거세했습니다. 이 말들이 실제로 무슨 뜻일까요? 721 절과 같은 구절을 보세요. 아마 저는 거의 모든 구절을 가리킬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우리는 예언했어. 야, 성경에 없었어.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할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 우리는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가라.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보고, 정말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하면서 슈퍼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모두 언어를 알고 있죠? 당신이 모르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언어는 너무 강해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리고 아마도 우리 스스로도 , 글썄,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 아예 무시할 거야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전체가 산상 설교를 무시한 이유는 대부분이 이해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당신도 완전해지세요, 548. 글썄요, 그거, 맏소사, 우울한 일이죠. 제가 어렸을 때, 계속되는 농담을 기억하세요. 얼마나 농담이었는데는 모르겠지만,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알다시피, 그들의 부름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들을 따르도록 격려하는, 알다시피, 신은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는 투덜거리는 늙은이이고, 그래서 저를 비참하게 지낼 외국으로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지 않을 거예요. 농담으로 말했지만, 하느님이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완벽해지라는 구절을 읽을 때, 아빠가 방망이로 우리를 때려 복종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빠는 나를 방망이로 때리지 않았어요. 어쨌든, 저는 설교에 대한 이런 종류의 고정관념과 우려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그것이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더 큰 문제들, 즉 설교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들어보라고 부탁드린 설교 중 하나가 이 주제를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어 전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신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의 선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사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토론의 주변에 있는 군중 중 일부는 아마도 헌신적인 추종자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듣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설교의 초점은 기독교인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7:7에서 알다시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건 비기독교인에게 한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믿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제 말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걸 정말 어려운 고상한 윤리예요.

비기독교인에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비기독교인이 산상수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6:33을 따를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럴 리가 없지, 그렇지? 그런데, 나는 NIV에서 일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알려드리자면, 나는 2011년판, 새판을 쓰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번역은 조금 달라.

저는 10년 동안 ESV의 신약 성경 위원장이었습니다. 저는 ESV를 좋아해서, 그것에 대해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NIV를 읽고 있으므로, 제 생각 속에서, 제... ESV가 제 머릿속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저는 ESV의 기반인 RSV에서 자랐기 때문에, ESV를 제쳐두고 NIV만 읽어야 했습니다. NIV 관용어법을 머릿속에 넣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4년 동안 위원회에 있었고, 아직도 NIV를 옹호한다고 생각하며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은 ESV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머릿속은 혼란스럽지만, NIV를 읽고 있습니다. 84판이 아니라 새로운

판입니다. 어쨌든, 산상수훈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비기독교인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간디가 틀렸던 이유입니다. 간디는 산상수훈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윤리적 가르침의 모음집이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그저, 그저 끔찍할 뿐입니다. 그저 끔찍할 뿐입니다. 완전히 달성할 수 없고, 완전히 반문화적이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서는 현실 세계에서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디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 점에서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전달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왕국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로, 저는 산상수훈이 모든 시대의 모든 제자들에게 전달된다고 믿습니다.

산상수훈 해석의 역사에서 일어난 일 중 하나는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그것을 특정 집단으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모든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산상수훈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을 위해 의도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퀴나스. 아퀴나스의 날짜는 언제였나요? 저는 날짜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누군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에 담았습니다. 아퀴나스는 1천년의 끝자락이잖아요. 어쨌든 아퀴나스는 평신도와 성직자를 분리했다고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평신도와 성직자 사이의 이 구분이 교회 역사상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퀴나스가 틀렸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것은 일반 사람들이 산상 설교를 따르거나 순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신부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목사와 설교자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성직자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 평신도, 평신도들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평신도 성직자라는 구분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저는 평신도라는 단어를 절대적으로 싫어하지만, 영어로 다른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목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전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전임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규칙과 지침,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것은 하나의 큰 왁스 공이고, 우리는 모두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은사가 교회에서 우리를 어디에 두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신도에 대한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는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알겠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목사들이 평범하지 않다고 말하죠.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1225 대 12.

좋아요. 좋아요. 그럼, 13세기.

저는 400년만 틀렸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퀴나스의 날짜. 어쨌든,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이 분열은 그저, 중국 교회에서 만연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장로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문구가 방금 떠올랐는데, 동료였습니다.

중국인의 정신에서 그들은 장로가 해야 할 일이나 목사가 해야 할 일을 다 보고,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은 그저 하도록 강요당하고, 되지 않도록 강요당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들은 이런 동료들의 구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성경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우(woo)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있을 때, 한 남자가 제게 와서 결혼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그저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 좀 이상한 요청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 맞아요. 저는 그보다 더 영적인 권위자로 인식되거든요.

그러므로 신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중국 교회에서 너무나 강한 평신도 성직자 구분 때문에 신의 기도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것이 아퀴나스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추측하건데, 제 말은, 저는 살았고, 저는 일종의,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녔고, 켄터키로 이사했고, 양키는 항상 두 단어로 된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도요. 빈칸을 채우세요.

그래서, 남부 문화에 대한 제 노출은 켄터키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켄터키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그곳 교회에서 전에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그것을 정말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게 어디에서나 사실일 거라고 확신하지만,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과 합창단원들이 있고, 그들은 하나의 영적인 소재입니다. 그리고 10분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괜찮지 않나요? 제가 목회할 때, 방문객을 위해 뒷줄 두 줄을 비워두고 싶었어요. 방문객은 항상 늦게 오거든요, 맞죠? 그들은 늦게 올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뒷줄에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고집하는 몇몇 가족들이 있었어요.

저는 누군가가 백로우 크리스천이 되려고 고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글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당신은 저 위에 있고, 우리는 여기 뒤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자 위에 멋진 밧줄을 놓았죠.

그들은 그냥 그것을 집어 올려 뒷줄에 앉고 밧줄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왜 그들이 뒷줄에 앉는 것을 원하지 않는지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뒷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매우 편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집사들에게 마지막 두 개의 뒷줄 의자를 집어서 교회에 들어간 지 2분 만에 다시 내려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그들을 뒷줄에서 떼어놓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그들은, 제 생각에 그들은 이런 구별에 매우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글썄요, 우리는 빌이 아니고,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것은 한 종류의 제자이고,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그게 정말 틀렸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 교회에 스며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건 아퀴나스에서 나온 거예요. 아마 그보다 먼저 있었을 테지만, 그가 공식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가 강의 계획서에서 제안한 입장 문서 주제 중 하나예요.

언젠가 교과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산상수훈과 교회에 두 그룹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설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그렇죠. 좁은 문을 통과해 어려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찾는 사람들이 소수 있습니다.

그게 한 무리입니다. 그리고 넓은 문을 통과하고, 쉬운 길을 여행하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에는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에 가고, 다른 하나는 지옥에 간다. 맞지? 설교를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바보들입니다. 그러니 확실히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에서 한 무리는 천국에 가고, 한 무리는 지옥에 갑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살고, 다른 무리는 관계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무리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모든 신자의 신권 교리의 요점이잖아요, 맞죠? 제 말은, 이건 위대한 종교 개혁 교리 중 하나예요. 우리는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누군가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신에게 고백을 듣기 위해 사제에게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 요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태도가 우리 교회에 만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 일부가 시작에 있었다면, 제가 문과 길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문을 통과하는 것은 괜찮지만 길을 여행하는 것은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문 반대편이 아니라 길 끝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세요. 그래서 지옥에서 무료로 빠져나갈 수 있는 카드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관없고, 저는 실제로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보세요, 이 교회의 규칙책에 서명만 하면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살 수 있습니다. 상관없고, 천국에 갈 겁니다. 그 교회는 실제로 불타버렸습니다.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불링 그린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가 정말 큰 요점을 설교했는데, 몇 년 후 건물이 불타버렸습니다. 우연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사제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 공평한 경쟁 환경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설교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 방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하고 목양하고 설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작은 비틀림은 경륜적 비틀림이며, 오래된 경륜주의에서 산상 설교는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경륜주의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 산상 설교를 하셨고, 그들의 구조 안에서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을 위해 하셨고 , 우리는 천년 왕국에서 이것을 따를 수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 중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륜주의의 그런 태도가 대부분 사라져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한 경륜주의는 더 이상 산상수훈이나 모든 복음서를 천년왕국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내용은 다른 곳에서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16장,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가 완벽 하신 것처럼 당신도 완벽해지세요 .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윤리 중 많은 부분이 다른 곳에서 반복됩니다.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설교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국민이 그것과 씨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눈을 뽑아내고 손을 잘라내는 것과 씨름해야 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게 두 번째 요점이었어요, 알겠어요? 좋아요. 세 번째 요점은 스토트의 직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제자도는 반문화적입니다. 그들은 스토트의 책의 이름을 다른 판과 인쇄본에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 일부는 반문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멋진 표현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가 사는 것과 우리가 설교하는 것은 엄청나게 반문화적이에요.

사실, 가끔은 내가 세상과 동의하는 것을 발견하면, 나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반문화적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수준에서, 우리가 믿는 것과 행동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개인의 성취와 거친 독립을 칭찬하는 거 맞지? 그런데 말보로 맨은 담배를 피운 적이 없어. 그 역을 맡은 사람은 흡연자가 아니었어. 그냥 남자처럼 보였을 뿐이야.

그래서, 그들은 그냥, 어쨌든. 저는 대학에서 사진 저널리즘을 전공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개인의 성취 와 거친 독립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영의 가난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온유함과 신의 권위에 대한 기꺼이 복종하는 것을 기념합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단지 반문화적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 꼬마야, 특히 오늘은 말이야. 사실, 오늘 아침 뉴스를 넘기다가 누군가 발목을 빼었고 건물이나 뭐 그런 곳을 상대로 500만 달러 소송을 걸었다고 봤어. 아, 엘 샤프튼의 딸이구나.

저는 자세한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뭐, 빼어진 발목에 500만 달러? 흠. 이제, 세상의 메시지는 권리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황금률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그들을 고소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설교가 너무 반문화적이어서 설교에서 울타리를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거나 설교를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울타리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중국에 대해 많이 생각했는데, 중국에서 그 코멘트를 했고, 목사님의 아내가 번역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며, 중국어로 '울타리를 넘어' 라는 표현이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울타리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글썄요, 울타리는 몇 개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가진 것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앞줄에서 대답하며, 사실 그녀는 정말 좋은 중국어 은유로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번역 작업의 훌륭한 예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의 은유는 무엇이었나요? 그는 말했습니다. 두 배에 한 발이 있다는 말. 대단하지 않나요? 울타리를 넘다.

두 배에 한 발을. 산상 설교는 우리가 왼발은 한 배에, 오른발은 다른 배에 두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불가능할 것이다.

당신은 헌신해야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무시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624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신과 돈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구절에서 급진적인 제자도에 대한 부름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만, 모든 곳에 암묵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땅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고기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화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렇죠? 다르지 않다면 제 역할을 할 수 없겠죠.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둠과 달라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암묵적으로 끝까지,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명시적으로, 정말 명확하죠.

우리는 너무 반문화적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교할 때, 저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2년 반 동안 불편함을 감수할 준비를 하세요. 제가 하는 말을 다 무시하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하거든요. 힘들 거예요. 너무 반문화적이예요.

네 번째, 이게 문제의 진짜 요점입니다. 이걸 다루고 나서 잠깐 멈추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윤리의 극단적인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어떻게 말씀을 다룰까요? 어떻게 말씀을 전파할까요? 우리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한다면, 잘라 버리세요.

당신이 정욕을 품었다면, 당신은 간음에 대한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정욕과 간음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계명을 어기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요? 완벽해지세요.

저는 거의 모든 구절에서 우리가 예수의 윤리의 절대적 본질과 씨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경향,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경향은, 글썽요,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무시합니다. 저는 그것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당신이 제안한 입장 문서 중 하나입니다. 저는 입장 문서를 좋아합니다.

사실,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입장 문서, 저는 교회를 위해 이런 글을 많이 썼고, 신앙 선언문 밖에 있는 영역이었지만, 교회의 방향을 안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장 문서는 교회 사람들이 읽어야 하는 것이고, 제안된 입장 문서 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테니까요. 그럼, 예수님의 윤리의 극단적인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A, 저는

우리가 그것에 온전히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제 말은, 그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눈이 당신을 죄짓게 했다면, 그것을 뽑아버리세요. 그리고 당신은, 저는 그런 뜻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구절의 후반부는, 두 눈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세상을 지나가고 인생을 사는 것이 낫지 않나요?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글썩요, 그 구절의 후반부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내가 한 손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한 손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아마도 *Dancing with the Stars*에 출연할 것입니다.

그거 봤어? 절단자, 수의사, 그리고 그의 팔이 여기 있어. 그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 그는 결승에 가까이 있어, 댄싱 위드 더 스타즈. 어쨌든, 이것 없이 인생을 보내고 천국에 가는 게 이 둘을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그래서 우리는 후반부를 보고, 오, 그래, 그래, 이해해. 그래, 맞아. 하지만 전반부를 보고, 글썩,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무시할게.

그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렇죠,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버리고 다른 것은 간직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과서 중 하나는 처음에 예수님의 윤리와 이 단어들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격려는, A, 단어들은 말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들은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른 반쪽이 있는데, 여기서 정말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좋은 단어는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해석에서 단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핵심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진실을 매우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외나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듭거듭 핵심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정말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맞죠? 이혼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다시피, 마커스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혼이 난무하는 문화권에서는 그게 혁명적이었습니다. 이혼하지 말라고요? 거의 모든 사람이 이혼했습니다.

글쎄요, 마태복음에 와서, 음, 간통죄가 아니면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죠. 오, 음, 어느 쪽인가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음, 제가 뭔가 말할 때마다 모든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뭔가 말할 수 없고, 문맥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나요? 제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이 영구적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외 없이 그냥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당신과 함께 살 의향이 없고, 당신을 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로마 이혼의 형태이며, 로마 이혼법에 따르면, 당신은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이혼입니다. 그는 당신이 구속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혼 언약을 깨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의 힘의 영향을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균형입니다. 예수님은 구석에서 기도하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와서 기도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치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공동의 공개 기도,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종종 넓은 열린 공간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요점은 무엇이였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단순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저는 곤경에 처합니다. 저는 아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일로 곤경에 처할 것입니다. 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작은 영역에서 예수님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꽤 강하게 말하고 스스로를 자격에 맞추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가르칠 때 항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요점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강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모든 예외를 생각할 것입니다. 알다시피, 제가 주요 요점을 말하고 그것을 강하게 만들게 해주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4번째 요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무게를 두어야 하는 해석입니다. B, 하지만 우리의 해석은 단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언어의 강점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에게는 이게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문구에 익숙하신가요? 좋아요, 성취와 완성. 좋아요. 산상 설교에 적용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미 있지만 그렇지 않은 Greg Beale의 최신 신약 신학, 그는 이것의 옹호자이고, 그는, 제 말은, 이것은 George Ladd가 자신의 글을 쓴 70년대부터 존재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Beal은 지금 Westminster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Gordon Conwell이었나요? 그는 이 주제를 지배적인 주제로 계속 밀고 밀고, 아마도 지배적인 주제라고 말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신약에서.

이미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저는 조지 래드가 사람들이 말하던 것을 아직도 기억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가? 그리고 그는 항상 같은 구절을 인용하곤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온 것을 알 거야.

네, 왕국이 왔습니다. 왕국이 총만하게 왔습니까? 글썄요, 아니요,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까지 왕국은 총만하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꺼이 꿇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마지못해 꿇을 것이지만, 모두 꿇을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으로 왕국이 오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 퍼질 때 성취가 있지만, 마지막 때에 궁극적인 성취가 있습니다.

이미 이미 여기 있지만 아직 총만해지지는 않았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사실 저는 Johnny and Friends에 갔었어요. 그곳에서 성경 훈련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장애인을 교회 리더로 훈련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시각 장애인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들어본 적 있나요? 왜 안 들어보셨어요? 흥미로울 것 같아요. 시각 장애인 목사는 여러분과 다르게 세상을 보고, 저는 그걸 보 거든요. 말장난이에요. 아마 이번 주 내내 제가 할 유일한 말장난일 거예요. 네, 휠체어를 탄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저와 다르게 삶을 볼 테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Johnny and Friends와 함께 일하는 이유는 성경적 훈련이 장애인을 교회에서 지도자로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인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수업에 갈 수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어쨌든, 토론하는 동안, 저는 그녀의 고통에 대한 책이나 팸플릿을 읽었고, 그녀는 이미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을 사용하여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녀가 켈러나 파이퍼에게서 그 대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만들어낸 대사지만, 그녀가 쓰는 대사는 그 대사에요. 그리고 그녀는 말하죠, 장애와 고통이 다른 것과 왜 달라야 하나요? 이미 있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신은 치유를 시작했지만, 치유는 완전하지 않을 것이고, 고통은 천국에 갈 때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고통과 장애가 기독교 법의 다른 것과 왜 달라야 합니까? 그건 그렇고, 멋진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있지만 아직은 아닌 신학을 사용하여 설교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설교를 끝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세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다소? 불완전하게?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죠, 맞죠? 고개를 끄덕여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네, 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요.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불완전하게, 불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성취될 때, 그것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니라. 당신은 지금 당신의 죄를 애통해할 때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큰 애통, 애통, 애통

, 우리가 한 모든 부주의한 말에 대해 설명할 때, 아마 그것이 마지막 애통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우리는 마침내 죄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위로받을 것입니다. 슬퍼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영원을 위해 기뻐할 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복이 있나니 , 그들이 충만함을 얻을 것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사슴이 물을 갈구하듯이, 나의 영혼이 당신을 갈구하노라, 그것이 우리 삶에서 사실인 것처럼, 우리는 위로를 받고 있고, 그것은 현실적이고, 필수적이며,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얽잡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마를 때, 우리의 위로는 우리의 충만이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완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아직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 이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이며, 심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환이죠, 맞죠? 이것이 바로 우리이고, 이것이 우리가 되어가는 사람이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될 사람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설교에서 성령과 은혜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고,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은 성령이 설교의 말하지 않은 영웅이고, 은혜가 말하지 않은 기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성령과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맥락에서 산상수훈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들이 명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 때, 제 추측은 성령,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 몰랐고, 은혜에 대해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설교가 그들을 압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이쪽에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온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성령으로 가능하게 된 우리가 누구인지입니다.

좋아요, 그럼 그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이 있나요? 네, 선생님. 글썄요, 저는 에스더와 매우 비슷하게, 도미노의 천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신의 손은 아마도 책 전반에 걸쳐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책 전체에 스며들어 있고, 그래서 은혜와 성령이 배경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예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두루마리를 원한다면 그들이 당신에게 팔아줄 것은 에스더뿐입니다. 저는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손으로 쓴 양피지, 그런 종류의 모든 것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판매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를 읽으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썄요, 모르드개가 그렇게 말하죠? 아시죠,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로 당신은 지금 여왕이에요. 글썄요, 누가 그녀를 그 자리에 앉혔는지 궁금하네요. CS 루이스의 나니아 같아요.

의자에 앉은 소년인가요? 소년과 그의 말인가요? 말과 그의 소년인가요? 예를 들어, 가끔씩, 제가 읽은 지 오래되었지만, 분명히 그는 누군가를 타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고, 말은 옆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방향을 잡고, 고칩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은

책을 읽고,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어서; 저는 아슬란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요점은 신이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항상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좋은 비유입니다. 이 방에서 에어컨이 방금 꺼졌나요? 켜진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는데, 공기를 좀 넣어 볼까요. 당신과 달리, 저는 신발을 벗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그는 신발을 걷어차서 신었어요.

이것은 설교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 저는 다른 손을 보았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시각 장애인인 학장을 두고 있었는데, 그는 나가서 설교를 했고, 그는 말했습니다. 네, 저는 그 손을 봅니다.

나는 그 손을 본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오, 그거 멋지다.

고맙습니다. 그들은 비디오에서는 꺼놓았을지 몰라도, 저는 그런 걸 없앨 수 있는 멋진 오디오 필터가 있어요. 비디오에는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 이 설교를 설교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설교를 통해 설교했는지 아니면 그 구절을 설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나 당신의 사람들이 설교의 언어의 강점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좋아, 맞아, 마카리오의 의미, 맞아, 그걸로 가자. 훌륭한 토론이야. 설교에서 설교했니? 맞아.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눈을 뽑고 손을 자르게 될 거예요. 좋은 표현이에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해하게 될 테지만, 그 과정에서 다 버려지게 돼요.

당신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굶주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육체적 필요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루에 4만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을까요? 그들 중 일부는 믿는 사람들입니까? 답은 이미,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주어진 것은 지금은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완전히 주어질 것입니다.

네, 어쨌든 설교는 도전이에요. 도전이고, 2년 반 동안 설교하는 게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설교를 나누거나 뭔가 해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설교를 천천히 설교하는 걸 듣는 건 힘들어요.

'라카' 라고 하면 패배자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구절을 설교한 것입니다 . 그렇게 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저는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설교했습니다 . 정말 멋진 아이, 25세 정도의 아이, 교회에 헌신하고,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제 말은, 이건 주변적인 기독교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첫 예배 전 다음 일요일에 제게 와서, 그냥 뭔가 알려드리고 싶어요라고 했어요. 제가 가서 , 뭐였지?라고 물었어요. 제가 당신을 용서했다는 걸 알고 싶어요.

내가 말했어요, 알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봐요. 그리고 그는 말했어요, 당신은 지난주 내내 내가 화가 나서 주기적으로 사람들을 욕해서 내 신앙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었고, 당신은 내가 지옥불, 게헨나불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예배를 설교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론에 실제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내가 틀린 말을 한 게 뭐였지? 내가 예수님을 어디서 잘못 읽었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나에게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냥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보장하건대, 그는 그 주에 누구도 패배자, 멍청이, 바보, 멍청이, 멍청이라고 부르지 않았습시다. 그가 생각하면서,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무엇이였을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무시합니다.

네, 우리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라하 에서 설교할 때 노트를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심판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단어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좋은 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지옥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그 단어에 온전한 힘을 주면, 문맥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 그리고 그것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그저 표면적으로만 살고 싶어한다면, 그들은 결코 그것을 알아낼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싶어한다면, 이런 것들은 씨름하기에 좋은 것들입니다. 제 말은, 사람들의 언어가 항상 은혜로 양념되고, 판단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이루어진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어떻게 궁금합니다.

라하 , 모레 , 그리고 다른 단어가 뭔지 기억이 나지 않는 한 구절을 가져다가,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야. 와, 그 교회에 가고 싶다! 그런 교회는 본 적이 없어.

저는 그런 교회에 가고 싶어요. 나쁜 설교도 참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교회에 있다면 참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야, 프랭크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잊었는데, 휴식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매 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나요? 25분마다요. 네, 알겠어요, 네.

우리는 매 시간 한 시간씩 휴식을 취합니다. 네, 그게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10분 동안 한 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시나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가시나요? 아니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휴식을 취하시나요? 한 번, 둘 다? 수업마다 다릅니다.

좋아. 좋아, 좋아. 음, 좋아, 오늘 아침 한 번 휴식을 취하자. 왜냐하면, 돈 문제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면 좀 더 긴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글썄요, 이걸 소개로 하고,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글썄요, 5:1부터 시작해 봅시다. 예수께서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왔고, 그는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NIV는 이 지점에서 정말, 정말, 정말 심각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번역본이 있다면, 제가 한 구절을 건너뛴 게 아닌가요? 알다시피, 그리스어는 이렇게 말하고,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이 결정이 내려졌을 때 저는 위원회에 없었습니다. 다시 제기해서 고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입을 여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약성서의 은유입니다.

정말, 정말,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문구입니다. 그는 입을 열었고, NIV에 대해 위원회 위원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들은 의미 없는 관용어라고 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가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산 위에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예수와 모세의 유사점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법이 아니라 모세보다 더 위대한 예수가 이제 법보다 더 큰 것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말씀되었다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구약성서적 이미지와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입을 열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가르쳤고, 그리고 우리는 행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어 단어 행복의 축복은 일반적으로 행복하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했지만, 요점은 마리안, 그게 당신의 이름이라는 거죠? 마리안, 마리온.

마리안. 마리안, 메리온. 알았어.

아, 그거 맞아? AN이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것은 그녀가 제기한 요점입니다. 행복의 말씀, 그리스어 단어는 마카리오스입니다. 대부분의 번역에서 축복받은 것으로 번역 되며, 여기서 행복이라는 문구가 유래했습니다. 행복을 의미하지 않으며, 제 생각에 번역 중 하나는 그렇게 합니다.

NLT인가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행복하다는 뜻은 아니고, 명량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축복받은 사람은 비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축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중국어에서 바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중국어에는 3인칭 단수 대명사인 타(ta)가 있고, 성별 표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들은 ta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ta를 영어로 채택하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

어쨌든 NIV에 나오는 두 여인, 세 여인은 우리가 남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정말 흥미롭죠. 그들은 남자를 완전히 성별 중립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이제, 그들을 여자라고 부르면 모욕적이고 모욕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자들과 편안해해서, 저는 남자들과 사람들을 골랐습니다.

어쨌든, 단수형에 대해 ta를 선택할지도 몰라요. 제 생각엔, 아시다시피,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네.

우리 모두는 다른 등록부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어쨌든, 축복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의롭지 않고, 행복하고 쾌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신에게 승인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고 그분의 승인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적 축복은 행복을 훨씬 넘어 보입니다. 그것은 상황을 훨씬 넘어갑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어떻게 느끼든, 그는 자신이 승인받았거나 그녀가 하나님께 승인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근본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좋은 점은 말하자면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받은 사람은 왕국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위로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축복받는다라는 것은 땅을 상속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축복받는다라는 것은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복론은 축복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그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분과 적절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홀먼 크리스천 여러분, 홀먼 크리스천 성경을 사용하는 분이 있나요? 좋아요, 글썄요, 홀먼 크리스천 성경은 흥미로운 번역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점 중 하나는 그들이 전통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통은 번역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며, 어느 정도는 그래야 합니다. 익숙한 구절을 너무 다르게 들리는 번역을 내놓아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혹은 출판사의 관점에서 당신의 책을 사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완벽한 예입니다.

심하게 오역되었고, 대부분 번역에서 의도적으로 오역된 것 같습니다. For God loves the world. So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어로 hutos 입니다.

학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NLT와 아마도 NET만이 그리스인에게 정직하게 말했고, 이것이 바로 신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이라고 말했고, 콜론, 그는 주었습니다.

그리고 NIV는 고맙게도 제게 NIV를 고칠 방법을 찾는 과제를 맡겼습니다. 엄청난 오역인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너무, 오, 그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어의 불가능한 번역, 불가능한 그리스어 번역입니다. 그래서 전통은 역할이 있지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홀먼 크리스찬은 전통에서 다소 벗어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무의미한 단어인 구유는 무엇일까요? 글썄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구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먹이통이에요. HCSB가 하는 일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번역은 이런겁니다: 그는 먹이통에 누워 있었어요. 훌륭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홀먼 크리스찬의 행복론 번역은 그들이 순서를 약간 어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행복론에서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당신은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행복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선언이며, 가장 깊은 차원에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사람들입니다. 행복은 그것에 대해 말하고 우리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합니다.

알겠어요? 알았어요. 그럼, 3절의 첫 번째 복된 말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니라. 영이 가난한 자는 무슨 뜻인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유사점을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것들이 같은 설교라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가 모든 곳에서 자신을 반복하는 유대인 랍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모든 곳에서 자신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상할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했고, 그들이 가르친 방식이에요, 반복해서, 암기해서요. 암기해서 배우죠.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설교가 같다고 생각한다면, 마태는 예수님의 더 깊은 의도를 이해하고 영으로 더함으로써 그것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두 설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글썄요, 재정적 빈곤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맞죠? 그리고 마태는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가난으로 구원받는다든 교리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이 가난한 사람은 하찮고, 가치 없고, 몸을 먹이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은 이런 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신적으로 가난하다고 말한다면요? 저는 하류 계층의 쓰레기 같은 종류의 것들을 말합니다. 구약성서의 배경,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것을 전에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추측으로는 여러분 대부분이 제가 이야기하려는 대부분을 들어봤을 테니까요. 알겠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자료를 다루어야 합니다. 맞죠? 아마도 빈틈을 메울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가난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약성서로 가서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맞죠? 가난한 사람은 확실히 재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부를 신뢰할 수 없고, 그래서 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구약의 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 그것은 그들이 돈이 없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들이 부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유일한 구원의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좋아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의 가난에 대해 사용하는 표현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파산을 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토드의 영적 파산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저는 종종 두 곡이나 두 시를 대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도, 아시겠지만, 인빅터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나는 내 영혼의 선장입니다. 세상의 주제가입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의 주제는 내 손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당신의 십자가로 가져가고, 나는 매달립니다.

이제, 저는 이틀 전 졸업식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아무도 그 대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노래인가, 찬송가인가? 찬송가인가, 그렇지 않은가?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시였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는 나를 눈처럼 하얗게 씻었어요, 그렇죠.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나는 당신의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이것이 영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과 교환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과 교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동등한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에서 우리 모두가 다루어야 할 것은 사람들이 회심의 시점에서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회심에서 전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적 파산이 그들을 처음에 신에게로 이끕니다. 저는 창조주와의 관계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죽고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영원히 떨어져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창조주로부터 소외된 내 죄를 돌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맞죠? 그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심에 관해서 그 진실을 고심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갈라디아인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끝맺죠, 그렇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착한 아이였어요. 이건 모두 가정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꽤 착한 아이였어요.

강간도 약탈도 안 했지, 그렇지? 아무도 죽이지 않았지. 개도 발로 차지 않았지, 그렇지? 나는 착한 아이였어. 나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 이후로 내가 신을 위해 한 모든 일을 보세요. 나는 그리스어 책과 해설을 썼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하나님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가 죽는 날까지의 싸움은 우리가 왕좌에 다시 올라가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맞죠?
갈라디아서는 3-1, 아시다시피, 당신을 홀린 사악한 갈라디아서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영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율법으로 그것을 완성할 것입니다. 영을 부어주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을 부어주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영적으로 파산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의로움이 우리 안으로 전가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안으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어떤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당신은 이런 자격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런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 교회에서 이런 갈등이 없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앞서 산상수훈은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것이고,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왕국에서 사는 방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단에서 우리는 영적 파산을 애도했지만, 죄에 대한 애도를 멈춘 적이 있나요? 아니요. 로마서 7장에 대한 당신의 해석에 따라 바울이 자신의 죄에 대해 애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 누가 나를 이 비참한 몸에서 구해줄까? 신께 감사드린다.

로마서 8:4,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창조물을 만들고, 새 마음을 주고, 거듭나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속받고, 화해하고, 입양되고, 이 모든 놀라운 것들을 다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가 왕국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윌리엄 케리의 인용문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 아 , 여기 있네요.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윌리엄... 이건 윌리엄에게서 온 거야...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겠어. 오, 존 파이퍼의 블로그 중 하나야. 그는 성경적... 이건 캐리야, 낮은 자존감의 마비에 대한 성경적 답은 높은 자존감이 아니라 주권적 은혜라고 말했어.

이사야 41장 13절의 말씀을 기꺼이 반복할 수 있는지 여부로 이에 동의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인용문입니까? 야곱의 벌레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벌레로 보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동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에게 이제 아름다운 나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울게. 나는 너의 구세주야.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

그것은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것이 바로 영의 가난입니다. 저는 부와 개인적 성취와 상관없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하고, 눈멀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눈멀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선언은, 왜냐하면 그들의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서 잠시 쉬겠습니다. 도대체, 말장난인 듯 , 두 번째 사람에게 말했죠. 도대체 신의 왕국이 뭘니까? 신의 왕국이 뭘니까? 다시 말하지만, 조지 래드가 이 주제에 대한 결정적인 책을 썼고, 아주 아주 좋은 책입니다. 왕국은 주로 장소가 아닙니다.

저는 왕국이 장소가 아니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번역 프로젝트에서 휴식 시간에 고든 피와 토론을 나누었고, 그는 제 말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왕국에는 공간적 요소가 있지만, 그것은 주로 장소가 아닙니다.

왕국은 래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입니다. 왕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왕적 통치입니다. 래드 박사는 그것이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고든이 제게 이해하도록 도와준 것은 제가 하나님의 왕권 아래 살 때 왕국이 공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증거와 설교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권에 복종함에 따라, 그것에는 공간적 요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을 표현하는 데 공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미,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왕국은 공간적인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로 시작하며, 그것은 내가 있는 곳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증거,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통해 천천히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것은 모두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얻을 때 일어날 일의 전조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제목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시죠, 여러 번 거쳤고, 그는 같은 것에 대해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미래의 무언가. 휴식 시간에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보면 알아볼 거야. 이제, 내가 정말 논란이 되는 것들을 말한다면, 나는 그것을 덧붙이려고 노력할 거야. 알려드리자면, 나는 나뭇가지에 나가고 있어, 알았지? 그리고 나는 여기 작은 나뭇가지에 나가고 있어.

그리고 이 요점은 모든 행복에 대해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어에는 약간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 그리스어의 일반적인 어순은 접속사, 동사, 주어, 직접 목적어이다. 그리스어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서가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리스어로는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그것을 앞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사실, 무언가를 순서 없이 놓으면 강조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강조하고 싶다면 가장 좋은 예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강조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글썄요, 이 모든 행복에서, 그것은 그들의 것인데, 그들의 것은 완전히 어울리지 않아요. 그것은 네 단어 뒤에 있어야 해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것인데,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은, 저는 이것을 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시다시피, 그가 설교단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행복에 대해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국에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왕국에 있는 유일한 사람들, 위로받는 유일한 사람들은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을 상속받는 사람은 온유한 자뿐입니다. 보여질 자들입니다. 여기서 정말 어려워집니다. 자비를 받을 자들입니다(7절), 자비를 베푸는 자들입니다.

왕국에 있는 자들은 오직 10절에서 박해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것을 알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고난을 당한 자만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리스어 어순을 강조하는 데 편안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것을 가져오고, 우리는 자비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결과를 생각해 보면, 당신 교회에는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 교회에는 최후의 심판 때 자비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생에서는 자비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기도문을 외우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온통 '아니오' 라고 말씀하시는 비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비롭지 못한 종에게서 나온 말씀입니다. 주인은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너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마지막 한 푼까지 값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는데, 물론,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것을 보기 시작하고, 당신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지 않나요?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것을 생각하고 당신 자신의 결론을 내리기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의미하고, 삶과 심판에서 자비를 받을 사람은 삶에서 자비를 보이는 사람뿐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당신은 저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저는 제가 개혁되었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웨슬리안처럼 들릴 것입니다

프랭크에게는 정말 실망스러운 일인 줄 알지만, 저는 개혁을 했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을수록 개혁이 점점 덜 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개 중 2개 반으로 줄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칼빈은 구원하는 믿음은 오직 믿음이라고 열렬히 주장했지만,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칼빈은 당신이 택함받든 저주받든, 당신은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오류입니다.

대학원 때 제 사무실 동료가 이렇게 믿었어요. 그는 택함받거나 저주받았고,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을 거고,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요. 어떤 형태로든 칼빈이 아니에요. 래리는 인도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인도에서 한 일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 거군요. 신이 모든 것을 미리 정해두셨거든요. 그는 말했습니다. 맞아요. 왜 갔어요? 그는 순종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래서 신은 당신을 왕국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을 하도록 보냈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죠. 그건 칼빈주의가 아니에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칼빈은 아니에요. 그리고 칼빈은 인내의 사실뿐만 아니라 인내의 필요성을 고수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제를 벗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제 구조와 제 생각은 개혁된 구조입니다. 제한된 속죄는 제가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처럼 다소 심하게 개혁된 사람으로서 자비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 설교에서 우리 모두가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하나의 중심 진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 왕국이나 하늘에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왕국 내의 삶은 이 하나의 중심 진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갈라디아서 3장).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부자라고, 나는 잘살고,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너희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 할머니는 가난한 영혼의 순환에 대한 훌륭한 예를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면 침실에서 몇 가지 물건만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서랍장이나 누워 있는 침대나 다른 것들이 보일 수도 있겠죠.

큰 물체만 볼 수 있어요. 침대에 오래 누워 있으면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서 할머니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고, 다른 것도 보이기 시작해요. 바닥에 놓아둔 옷이나 열린 문, 뭐 그런 게 보여요.

그리고 당신이 침대에 오래 누워 있고 태양이 더 강해지면, 당신은 햇빛 속의 먼지 얼룩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우리 삶 속의 큰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루시며, 당신을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게 만드는 주요한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다루십니다. 그런 다음, 당신이 제자가 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빛이 비추고, 당신은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여전히 우리 몸에 스며드는 죄의 작은 조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매우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한 주석가가 “이 사람은 남자다운 바울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는데, 이는 바울에 대한 것보다 주석가에 대한 내용을 더 잘 말해줍니다. 바울은 예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영의 가난은 순환적인 것이고, 항상 배우고, 항상 성장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실, 당신은 영의 가난을 점점 더 자각하게 됩니다.

할머니의 설명이 고맙습니다.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부주의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라는 문구를 아시나요? 그게 신경 쓰이시나요? 저는 입이, 제 인생이 그냥... 두 살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는데, 그때부터 엄마가 제가 그 일을 보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정말 두려운 점이었고, 저는 마침내, 얼마 전, 제가 더 이상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정말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쯤이면, 제 침실에는 많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성격, 행동, 생각에서 하나님과 맞지 않게 사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문제들, 저는 일곱 살 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착한 꼬마였어요. 신에 대한 반항의 시기를 겪지 않았어요. 글썄요, 그 한 해를 제외하고는요.

하지만 대부분은 상승 궤도였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맞죠? 여러분 중 일부는 저와 같은 배에 타고 계시죠, 맞죠? 여러분이 난잡함, 마약, 그리고 다른 고정관념적인 죄의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만드시는 변화를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기독교인으로 자란 사람들은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죠, 맞죠? 알겠어요.

당신들은 모두 매우 무표정하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알아낼게요. 특히 당신, 세스.

나는 당신이 표현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에게 시작하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는 내일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어. 내가 한 모든 부주의한 말에 대해 당신에게 설명할 것을 고대하는 이유는 내 모든 죄가 한곳에 쌓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마침내 두꺼운 두개골을 뚫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야.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저는 제 죄의 깊이를 보고,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한, 영의 가난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고대합니다. 저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이제 종말론을 깨닫고, 존, 나는 이미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압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기대하며, 영의 가난을 온전히 이해합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잠시 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이유는 이것이 나머지 행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Martin Lloyd-Jones는 황금 사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훌륭한 비유입니다.

모든 행복은 연결 고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연결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이것이 설교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인식하며 삽니다. 행복 2~8은 영의 가난에 대한 설명이고 설교는 행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설교에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로 이 특정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고 부릅니다.

좋아요. 좋아요. 법적 은유예요.

그게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게 예수가 핵심으로 사용하는 은유가 아닙니다. 영의 빈곤입니다.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구절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산상 설교에 대한 빌 마운트 박사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 서론과 행복입니다.

.